진안군, 5769억원 규모 예산안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응·지역경제 도약·군민 삶의 질 향상 등 중점

진안군은 지난 21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 증가한 5,76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899억 원, 특별회계는 869억 원으로 특히, 이번 예산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지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농업, 복지, 환경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소폭 증액 예상과 정부의 확장 재정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전망 등에 대한 세입 여건을 꼼꼼히 분석했다.

군은 내년도 재정 운용의 중점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대비에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예비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여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민의 실질적 소득 기반 및 복지 확충에 예산을 대폭 투입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가장 많은 1,374억 원을 편성하여 농촌 유통 기반을 혁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사회복지 분야 역시 1,063억 원을 투입, 노인 및 여성가족 등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였다.

이 두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로, 진안군 재원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편성했다.

특히 2026년 전북도민체전과 2026-2027 진안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사업(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21억), 농촌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정책(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 10억5000만 원 등) 등 군민의 생활 밀착형 애로사항 해소 사업과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재원도 최대한 반영했다.

전춘성 군수는 "내년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농업과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폐교 활용 '무주 백패킹' 행사 눈길

450여명 참가 1박 2일 일정 트래킹·낙화놀이 등 즐겨

무주군은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무주읍 등나무운동장과 적상면 하유마을 등 무주군 일원에서 '베이스인네이처 무주 백패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이스인네이처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와 무주군(인구감소지역 관광 인구 충전 지원사업)이 협업해 추진했다. 자연특별시 무주의 숨겨진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국에서 45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등나무운동장에 모여 당산리와 오동재, 길왕마을, 적상면 소재지, 여원마을을 지나 하유마을까지 22㎞를 트래킹했다.

야영지 삼방초등학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자 무주군 대표 전통 문화유산인 '낙화놀이' 시연을 참관했으며, 무주군 청년들이 운영하는 '산골 낭만', '산타지' 등 단체들이 참여해 무주산 농산물로 직접 만든 '술빵'과 '산산 사과주스', '산타지 하이볼'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무주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낙화의 낭만, 산골 무주의 맛, 그리고 폐교에서의 하룻밤을 만끽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며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행사 취지도 인상 깊었고, 기회가 된다면 꼭다시 와보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장기진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트래킹 행사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가 가진 다양한 매력과 가치를 어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폐교'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과 무주의 자연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무주다움'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백패킹 행사가 앞으로 무주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민들, 국도 26호선 예타 통과 기원 캠페인 펼쳐

장수군 군민들은 지난 20일 국도 26호선 선형개선 대상 구간 일대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국도 26호선(진안~장수 천천) 구간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군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지역 주민과 천천면 이장단 등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국도26호선 예타 통과 기원", "동부 내륙 교통축 완성"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 현장에서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알렸다.

이번 퍼포먼스는 국도 26호선이 전주-진안-장수를 잇는 핵심 생활·물류 축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도로 환경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라 군민 스스로 필요성을 알리고 국가계획 반영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은 "20년간 장수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26호선(진안~장수 천천) 선형개량사업은 군의 균형발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국가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민 캠페인은 최근 장수군이 국회와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해 도로 현안 해결을 건의해 온 흐름과 맞물려 '행정과 군민이 함께 움직이는'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된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9월 세종청사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장수군 도로현안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해왔으며, 11월에도 다시 국회를 찾아 국도26호선 일괄예타 통과와 주요 구간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군민 캠페인은 이러한 군의 노력에 지역사회가 동참해 같은 목소리를 내며 국책사업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장수군은 군민들과 함께 국도26호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국도26호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 공론화,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민박 시설 안전 강화 총력

무주군은 지난 21일 무주읍 소재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5년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지역 내 농촌 민박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안전한 휴식 환경조성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역 내 농어촌 민박 사업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법령·제도·사업 안내,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을 비롯한 심폐 소생술 실습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야 방문객들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라며 "특히 심폐 소생술 실습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내용이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료기관 5개소, 의료·돌봄 통합지원 협약

장수군은 지난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5개소와 '장수군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서비스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이 강화된 '장수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김문철 장수군의사협회장, 김성남 장수군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지역 양·한방 의료기관 5개소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김문철내과의원, 동아가정의원, 박승민내과의원, 소망한의원, 송한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관들은 의료·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방문진료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재택의료 모델을 적용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관과의 정기적 협업 체계 및 지역 의료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추진해 군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문은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딧불사이버장터 활성화 나서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위원장이 무주군 재방문 사례 증가와 농·특산품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20일 열린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특산자원 융복합지술지원 사업장 운영과 관련, 아이엠무주의 해썹(HACCP) 인증 현황을 물으며 "사업을 추진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주군을 대표할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대표상품이 되는 게 아니므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군내 여러 행사장에서 시식용으로 선보인 '천마빵'이 높은 호응을 얻어 천마빵 제품과 유통에 군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어진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딧불사이버장터 매출액이 초기보다 크게 높아졌으나 후기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매 혜택 제공이나 우수후기 선정 등 정책을 만들어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와인동굴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천마건빵'을 중단한 사유를 묻고 무료제공 중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천마건빵 제공을 속히 재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계획이 없다면 홈페이지에 중단 사실 공지를 하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복분자 생산량을 언급하며 수급기반 시설 확충과 판매망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고 질의를 마쳤다.

한편, 문 위원장은 태권도문화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최 예정이던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돌연 기장군에서 개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해양 위원, "산림녹지과 공정관리 보고회의 수범사례 선정해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산림녹지과의 공정관리 보고회의를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무주군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해양 위원은 20일 열린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관리 보고회의를 부서장이 틀어쥐고 진행한 결과 안전관리와 공정률 제고, 사업지연 예방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타 부서에서도 공정관리 보고회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산불과 산사태 등에 대비한 산림재난상황실을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부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사방댐과 임야도로 등을 지도에 표시해 산사태와 산불예방, 요구조자 구난 등을 돕는 산림업무 전산화를 제안하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정비해 안전한 이륙환경을 조성하고 산림레포츠를 관광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또한 무주군이 자체적으로 산림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중·장기 산림사업 계획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치유, 휴양, 레포츠 등 산림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무주군은 마땅한 계획이 없다. 그동안 시행한 임산물류센터, 표고버섯배지센터, 목재펠릿공장 등 산림사업들도 크게 성공한 게 없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체계적인 산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마스터플랜 수립 방식에 대해 이해양 위원은 "산림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시행하는 용역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담을 수 있도록 산림전문가를 비롯해 무주군의 임업인과 산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충분히 토론하며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영희 위원, 실내 위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개선 요구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희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건물 외부에도 설치해 위급한 사람들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희 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57곳(의무설치 33개소, 자체설치 124개소) 가운데 의무설치된 32개소가 실내에 있고 실외에 설치된 곳은 1개소에 불과했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분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돼있어야 하는데 실내에 있고 출입문이 잠긴 상태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위원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며 무주군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를 면밀히 조사해 여러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야외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야간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설치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전 직원과 군민이 숙지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윤선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마련 등 선제대응 강조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이 복지 무주를 말할 수 있으려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며 스트레스가 많다. 이들에 대한 근속수당,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인근 시·군에 맞춰서 가는 분위기인데 무주군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윤선 위원장은 식사준비, 청소,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지원사들도 사회복지 종사자에 포함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새 단장 마치고 재개관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이 노후시설 개선 및 청소년 수요에 맞춘 공간 재구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21일 재개관식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재개관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최신 장비를 갖춘 댄스연습실, 멀티스포츠실, 북카페 및 스터디룸 등이 마련되었다.

이날 재개관식은 주요 내빈과 수련관 관계자,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재개관식 이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년의날'이 진행되어,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제공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재생에너지 마을 자원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21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마을 자원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전춘성 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안상용 진안군이장단협의회장, 탄소중립진안행동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원조사 결과와 재생에너지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마을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가능 지역 및 일사량 분석,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 주민 주도형 발전사업의 경제성 검토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진안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그동안 외부 민간사업자 중심의 발전 수익 독점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촌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겨울철 전기화재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난방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미확인 단락, 절연열화, 압착 손상, 접촉불량 등으로,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과열, 합선 등의 위험이 커져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전선 피복 손상 여부 확인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않기 △미사용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누전차단기 정기 점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